경복궁 종소리

장영실의 측우기

비의 양을 측정하라

오랫동안 발명 연구를 했던 장영실은 채방별감의 자리를 자청해 경상도 문경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곳에서 여러 종류의 광물을 다루다 보면 내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채 3년이 되기도 전에 장영실은 한양으로 돌아온다.

"어서 오시오."

모두가 장영실의 한양 귀환을 축하했다.

"마마, 정4품 호군 장영실 알현이오."

장영실의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세종은 영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장공, 그대가 필요하오. 내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장영실은 세종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한양으로 돌아온 지 3일도 되지 않아 영실은 또다시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된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 방법을 써

봤지만 언제나 결과는 실패였다.

'내가 이 연구에 몰입한 지도 벌써 6달이 다 되어 가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으니.'

사실 측우기의 제작은 서운관에서 맡은 지 2년이 넘어서도 록 진척이 없던 것이었다.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일을 장영실 혼자 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낮이 지나고 밤이 와도 장영실의 방에는 불이 꺼질 줄 몰랐다.

날이 갈수록 장영실의 마음은 초조해졌다. 그냥 그렇게 해가 바뀌었고 살인적인 더위가 전국을 감쌌다.

하늘이우중충하더니대낮인데도어두워지기시작했다.

금방이라도소나기가쏟아질것같았다.

문을열어놓고하늘과마당을내다보던영실은자신의아내가물동이를들고나오는것을보았다.

“ 무엇을하려는거요? ”

“ 빗물을받아두려고요. 금방비가쏟아질것 같아요. ”

아내는하늘을올려다보며이야기했다.

“ 당신도더운데그곳에있지 말고 대청에나와 계세요. ”

“ 그럴까? 올여름은유난히더운것같아. ”

순간굵직한빗줄기가마당을적시기시작했다. 아내는급히몸을피하며부엌으로달려갔다.

빗소리가유쾌하게마당에떨어졌다.

아내가내놓은물동이에는조금씩빗물이채워지기시작했다.

무심코밖을보던영실은무릎을내리쳤다.

“ 그래, 그거다. ”

버선발로뛰어나온영실을보고아내는화들짝 놀랐다.

“ 아니, 대감! 지금무얼하시는거예요. ”

“ 부인, 보시오. 드디어…. ”

영실은아내에게측우기에대해설명했고아내는이해한듯고개를끄덕였다.

“ 당신덕분에큰일을해냈소. ”

영실은곧측우기제작에들어갔다.

그러나여름이다가고새싹이움트고봄나비가춤추는다음해가되어서야작업을마칠수있었다.

높이41.2센티미터, 지름16.5센티미터의원통

모양의쇠그릇이었다.

이발명으로장영실에게정3품무관호군의벼슬이내려졌다.

천민출신으로 정3품무관호군의자리에오른 조선‘ 과학의아버지장영실.

그가만든측우기는서양의것에비해약150년이나앞선것이었다.

하지만그가만들어낸 발명품가운데는오늘날 기록만남아있을뿐, 실제전해져내려오지못하는 것이너무많다.

끊임없이연구하며발명하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 그것을지키고후세에전하는것도중요하다. 우리의역할은여기에있는지도모른다.

다음호에계속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팀장
왕연중 記